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8. 16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##### ○ 러시아, 아프리카에 비밀용병 지원

- 8.13 CNN은 러시아가 중앙아프리카공화국(CAR)·리비아·수단 등에 비밀용병을 투입, 경호·안보자문·군사훈련 등을 지원하며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

\* 「푸틴」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러시아 용병들이 테러와의 전쟁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러시아 군인은 아니라고 부인

#### 미주

##### ○ 멕시코, 10년간 미국산 무기 250만개 밀수입

- 8.11 현지언론은 지난 10년간 멕시코 마약조직이 미국으로부터 밀수한 무기가 약 250만개에 달하고 있으며, 이러한 불법무기로 인해 멕시코내 살인사건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

\* 멕시코내 총기살인은 '15년 1만456건에서 '18년 2만3천939건으로 급증, '19년 상반기에도 1만2천215건 발생

##### ○ 美 국무장관, 국제사회에 對이란 압박 참여 촉구(NEWSIS)

- 8.12 「폼페이오」 美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對이란 무기금수 조치\* 등 ‘이란 정권을 저지하고 있는 국제협정의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간다’며 국제사회를 향해 미국의 對이란 압박정책에 참여할 것을 촉구

\* 이란 핵개발 의혹 등을 계기로 '20년까지 군용으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를 포함하여 재래식 전력의 이란 수출 제한(유엔 안보리 결의안 1747호('07년))

## 아 · 태평양

### ○ 인도, 이슬람무장단체의 대도시 테러 가능성 제기

- 8.8 인도 현지언론은 정보당국을 인용해 이슬람 무장단체 「자이시-에-무함마드(JeM)\*」가 뭄바이 등지에 테러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, 파키스탄정부가 同 테러를 부추길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보도

\* UN·미국('01), 캐나다('02), 호주('03) 등에서 테러단체로 지정

### ○ 카슈미르 지역, 이슬람 무장단체의 재기 발판으로 악용 우려

- 8.11 WSJ은 인도정부가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한데 대해 현지 이슬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, 알카에다·IS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同 지역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

### ○ 뉴질랜드, 모스크 총격테러 이후 총기 1만정 이상 회수

- 8.13 뉴질랜드 정부는 이슬람사원 총기테러('19.3.15) 이후 반자동 소총 등에 대한 'Buy-Back 정책'을 실시('19.7.13~12.20) 중인 가운데, 현재까지 1만242정의 총기가 반납되었다고 발표

\* 뉴질랜드 인구 약 480만명 중 25만명이 100만~150만정의 총기 소유 추정

## 중 동

### ○ 예멘 후티반군, 사우디 공항에 드론 공격

- 8.10 후티반군 대변인은 8.5 사우디 칼리드국왕 공군기지와 아브하·나즈란공항, 8.8 아브하공항의 유류저장고 및 관제탑을 드론으로 공격하여 사우디의 항공교통을 마비시켰다고 발표

\* 이와 관련,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반군이 아브하공항에 드론공격을 시도 하였고, 드론 1대를 요격했다고 언급

### 英, 런던 의사당 앞 차량돌진 테러

- '18.8.14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차량돌진 테러가 발생하여 3명이 부상
  - 오전 7시37분경 은색 승용차가 국회의사당 주변을 통행하던 보행자에게 돌진하여 국회의사당 철제 보호벽을 들이 받고 정차하였으며, 테러범(29세, 수단출신)은 현장에서 체포
  - \* 국회의사당 부근에서는 '17.3월에도 SUV차량으로 보행자에게 돌진하고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른 테러가 발생(사망 4명, 부상 20여명)
- 사건 직후 런던 경찰은 의사당·의회광장·웨스트민스터역 등을 폐쇄하고, 수십명의 무장경찰과 소방관 등을 동원해 자동차와 인근 수색
  - 추가 폭발물·무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, 경찰당국은 同 사건의 고의성과 범행방법(차량돌진)·장소의 상징성(의사당 부근) 등의 요인을 고려해 테러사건으로 규정하고 살인미수로 기소 처리

## 테러 상식

### < 세계 총기 규제 >

- (미 국) 수정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상 自衛를 위한 무장권리가 보장되어 국민의 총기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인정, 총기소지 연령은 卐마다 차이가 있으나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卐도 많아 총기 소지가 용이
- (유 럽) 대부분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총기 소지가 가능하며, 철저한 신원조사 등을 거칠뿐만 아니라 총기 종류와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
  - \* EU는 '15.11월 프랑스 파리 총격참사(130여명 사망)이후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행정명령 발동(반자동총기 유통금지 및 총기부품 일련번호 부여)
- (아시아) 한국·중국·일본 등에서 원칙적으로 총기 소유를 금지, 중국은 軍·警이외 총기소유를 금지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사냥 등 제한적 목적으로만 허용
- (오세아니아) 호주는 엄격한 평가를 거쳐 소유가 허용되며 반자동소총은 금지, 뉴질랜드는 호주보다 유연하였으나 '19.3월 모스크 테러이후 반자동소총 금지 및 요건 강화